



“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

계시록 21장 2절

참예수교회 한국교회 설립

70주년 기념호

편집 | 참예수교회 정보출판부

빛처럼 도서출판

1948 - 2018

참예수교회
한국설립

70주년 기념호



빛처럼 도서출판

참예수교회 한국설립

70주년 기념호

참예수교회 한국총회

발간사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참예수교회 한국총회는 2018년에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축하와 기쁨을 나누게 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45년 한복음의 씨앗이 일본 오사카로부터 한국 김천에 이르게 되어 1948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 삼계(홍곡), 서도, 전주, 회기, 부여, 대구, 부산, 신길, 남원, 서천, 대전, 수문, 운암, 안동, 녹번, 강진, 화산, 청주, 고잔, 여우치, 쌍치 등으로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러 33곳에 교회가 세워져 미약하나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음은 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두보의 시 가운데 ‘인생 칠십 고래행’이라는 시구를 빌리지 않더라도 70이라는 숫자는 적은 연수가 아닙니다. 공자는 “70이 되어서야 마음먹은대로 행하여도 이치(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70이란 인생의 완숙의 단계요, 성경적인 의미 또한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이로 보건대 한국교회 성립 70주년을 맞는 의의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이한 한국 교회가 더욱 더 완전하고 성숙된 교회로 성장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참예수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아 세계연합총회에서 ‘백년영은 세기전승’이라는 기치 아래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주체적인 연합 행사가 있었습니다.

참예수교회 100년의 역사 중 한국교회 70년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시사하는 바 또한 적다 할 수 없습니다. 그간의 성령의 인도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오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한국교회의 복이요 큰 다행이라고 여겨집니다. 외부에서 선교사가 파견된 것도 아니요 특별한 신학적인 소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일반 개신교단들처럼 외국으로부터 물질적인 큰 지원도 없이 단지 한 사람의 평신도로부터 시작하여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참예수교회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도 매진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한국교회도 70에 걸맞는 성숙된 자세로 주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신도 목양의 사명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토대를 발판으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한국 교회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하신 예언의 말씀이 우리 목전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에 주의 성업을 위해 헌신하신 주의 종들과 성직자들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오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2018. 8. 3. 참예수교회 한국 총회장 윤득도

- 차 례 -

발 간 사

제1장 참예수교회의 약사	1
1. 20세기에 나타난 오순절 운동	1
2. 중국에 설립된 참예수교회	3
3. 한국에 전파된 참예수교회	8
특집. 순교자 박필선 목자의 생애	13
제2장 참예수교회의 기본신앙	20
제3장 한국총회 연혁	23
1. 총회 연혁	23
1940~1950년대	23
1960~1970년대	29
1980~1990년대	36
2000~2018년 현재	49
2. 각 교회 연혁	67
(1) 김천 교회	68
(2) 삼계 교회	71
(3) 서도 교회	74
(4) 전주 교회	77
(5) 동부 교회	82
※ 부여 교회(1954~1977)	85
(6) 대구 교회	87
※ 쌍치(雙置) 기도소(1956~1996)	89
(7) 대방 교회	90
(8) 부산 교회	93
(9) 남원 교회	97
(10) 대전 교회	100
※ 서천 교회(1959~2017)	103
※ 운암 교회(1963~1970)	106

(11) 수문 교회	107
(12) 안동 교회	110
(13) 서부 교회	112
※ 강진 교회(1966~2008)	115
※ 화산 교회(1967~2018)	117
(14) 청주 교회	118
※ 여우치(如牛峙) 기도소(1973~2000)	122
(15) 목포 교회	123
※ 영광 기도소(1983~1994)	125
(16) 광주 교회	126
(17) 인천 교회	128
(18) 거제 교회	130
(19) 평택(구 오산) 교회	132
(20) 안산 교회	134
(21) 강남 교회	136
(22) 수원 교회	138
(23) 광양 교회	140
(24) 장항서부 교회	141
(25) 분당(구 성남) 교회	143
(26) 원주 교회	144
(27) 천안 교회	146
(28) 보령 교회	148
(29) 안양 교회	148
(30) 하남 교회(개종 교회)	149
(31) 해운대 교회	150
(32) 의정부 교회	151
※ 강릉 집회소	153
※ 제주 집회소(1996~1998, 2016~)	153
※ 충주 집회소	154
제4장 참예수교회 교세 현황	156
1. 한국 총회 소속 교회 및 기도소 분포	156
2. 세계 선교 현황 지도	157
3. 세계 각국 현황 통계표	158

4. 한국 총회 재적 신도 및 예배 현황(2018. 7. 31)	159
5. 성직자 현황(2018. 7. 31 현재)	160
제5장 한국 교회의 각종 통계	161
1. 예배 참석 통계	161
2. 수세·수령자 통계	163
3. 재정 수입 통계	164
4. 성직자 수의 변화 통계	164
5. 종교교육 통계	165
6. 단기신학 참석자 수 통계	167
제6장 기타 활동사	168
1. 목회자 신학연수회	168
2. 호렙산 선교합창단	169
3. 에덴장학회	172
제7장 간 증 모 음	177
• 주를 기쁘시게 할 종으로 부름받다(김충복 원로 목자).	177
• 어머니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김은혜 집사).	182
• 산막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정효정 자매).	186
• 참 진리의 교회로 인도받다(김정옥 자매).	190
• 아빠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정효정 자매).	196
• 환난 중에 큰 평안을 주신 하나님(신수덕 자매).	203
• 하나님이 교무 임원으로 인정해 주시다(이안드레 집사).	206
• 남편의 중풍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강옥경 집사).	208
• 단기신학 수강 기간 중에 성령을 받다(진광종 형제).	210
•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정예순 자매).	211
• 74년 만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정수연 모친).	213
• 은천 기도소에서 참예수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황재순 원로 목자).	215
• 귀향 후 중국에서 알게 된 참교회를 발견하다(권용남 모친).	221
• 패혈증 앓는 자녀가 치유되다(임성숙 자매).	222
•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 병이 나았다(유광훈 형제).	224

편집후기

일어나라
벗을 벗하라
이는 네 벗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제1장 참예수교회의 약사

1. 20세기에 나타난 오순절 운동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사도교회는 성장과 더불어 내·외적인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내적으로는 사도들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혹독한 박해를 감내해야 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두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혹독한 박해를 감내해야 했던 사도교회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Flavius Valerius Aurelius Constantinus) 황제가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공인하면서 비로소 박해를 면할 수 있었다. 밀라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은 기독교는 AD 392년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새로운 도전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였다. 그 도전의 상황이란 바로 세속 권력에 의해 교회의 진리가 변질되고 그 결과 더 이상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로서의 본질적 권세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위기였다.

사도교회는 비록 펫박은 면했지만 세속 권력과 타협함으로써 변질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영혼 구원의 본질적 권세는 상실한 채 외형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주교(天主教), 즉 로마 가톨릭 교회(Roman Catholic Church)이다. 세속 권력의 수장인 황제의 압력으로 사도교회의 진리는 변개되었다. 로마 천주교는 종교회의를 통해 기독교의 성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버렸고 이후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내용으로 변개하였다.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 2계명도 삭제하여 성상 숭배, 성인 숭배의 그릇된 신앙을 정당화하였다. 본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본래 물에 잠기는 '침례'의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나 나중에는 물을 머리에 찍어서 베푸는 '적례'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성경 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크리스마스라는 절기를 제정하여 예수 탄생일로 기념하게 만들었다.

로마 가톨릭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부패의 길로 치달았다. 1517년 가톨릭의 한 사제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면죄부 판매'와 같은 가톨릭의 그릇된 교리를 지적하며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분연히 일어섰다. 이른바 '종교개혁'(Reformation)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한 온전한 개혁은 아니었고, 오히려 이 개혁은 여러 가지 한계와 오점이 있었다. 종교개혁 이후 4백년이라는 기간 동안 개신교는 무려 천여 개의 교파로 분열되었는데 그 원인은 교리적 이견, 교회 치리 체제의 차이에 의해서였다. 종교 개혁의 주역인 '루터'와 '츠빙글리'(Ulrich Zwingli)조차 성찬례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개혁 초기에 서로 결별했다. 따라서 기독교회사 안에서 이 운동은 '종교 개혁'으로 표현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종교 분열'의 성격을 안고 있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저지른 가장 중요한 잘못, 즉 성일을 일요일로 변개한 것, 십계명의 내용을 변개 및 삭제한 것, 성례를 변개시킨 것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 개혁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에 그쳤다. 그 후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과거 오순절 이른비 성령으로 세워졌던 사도교회를 회복할 시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청교도 신앙의 나라 미국에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다. 1900년 미국의 캔サ스주(State of Kansas), 텍사스주(State of Texas), 오클라호마주(State of Oklahoma) 등에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모인 기도 집회에서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등의 일이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들은 독자적인 기독교 신앙 단체를 조직하고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온 세계를 오순절 운동의 열풍 속에 몰아넣었다. 그 단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도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기치 아래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였다. 그 가운데 일부의 단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물에 잠기는 침례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도 했다.

미국의 오순절 운동의 물결은 기독교에 대해서 변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 중국으로 건너간 단체가 사도신심회(使徒信心會 Apostolic Faith Church), 신소회(神召會 Assembly of God), 오순절회(五旬節會 Pentecostal Church),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등이다. 1907년 오순절회가 먼저 중국에 전해졌고 뒤이어 사도신심회가 전해졌다. 사도신심회 소속의 '번슨'(賁德新 Bernt Berntsen 노르웨이 출신. 미국 선교사) 목사는 1911년 중국 산서성에서 「통전복음진리보」(通傳福音眞理報)라는 전단지를 발행하여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의 비(非)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믿으면 구원 얻으며 그 후 열심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또 '제 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경우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은 깨달았지만 과거 유대인들처럼 율법적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그쳤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은혜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길은 깨닫지 못했다. 또 침례 교단에서는 세례를 침례의 방식으로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깨달았지만 초대 교회처럼 세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침례 자체에 '죄씻음'의 효력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증거에 대한 이해,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준수할 성일에 대한 이해, 세례를 침례로 주어야 한다는 세례에 대한 이해는 교단 교파별로 부분적으로 존재했지만 모든 진리를 온전히 구비한 교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 전파된 기독교 신앙 운동의 배경 속에서 장차 성령에 의해 위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때가 무르익게 되었다.

2. 중국에 설립된 참예수교회

참예수교회는 어떤 교단, 교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교회가 아니다. 또 특정한 한 인물이 교주가 되어 창립한 교회도 아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구체적이고 섬세하신 역사를 태동하고 성장한 것처럼 참예수교회도 인간

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섬세하신 역사와 인도로 세워지고 성장하였다.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던 초기의 일꾼 장영생(張靈生), 장바나바(張巴拿巴), 위바울(魏保羅) 등 세 인물에 대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장영생은 본명이 빈(彬)이며 산동성 유현 사람이다. 1900년 37세 되던 해에 장로교에 입교하여 신도로서 7년, 집사로서 3년 총 10년의 신앙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1909년에 장영생의 장남 장부천은 사도신심회의 전도를 받고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한다. 그는 고향에 내려와 부친 장영생에게 자신이 성령을 받았음을 전했다. 장영생은 이를 듣고 그해 9월에 상해로 갔다. 그곳 사도신심회 내에서 그도 안수를 받고 성령을 구했으나 두 주가 지나도록 성령을 받지 못하고 다시 귀향했다. 그 후 그는 계속 성령을 간구하여 마침내 그해 12월 21일(양력 1910년 1월 31일) 새벽 그토록 갈망하던 성령을 받는다. 이후 그는 주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어느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계시를 받고 그는 사도신심회의 '번슨'(賁德新 Bernt Berntsen) 목사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건의했다. 이에 번슨 목사는 1916년 7월 사도신심회 내에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선포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이를 철회하고 다시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던 과거로 돌아갔다.

위바울은 본명이 은파(恩波)이며 하북성 보정부 용성현 사람이다. 1902년 그는 자신의 집을 북경으로 옮겨서 포목점을 운영하였다. 1916년에 그는 사도신심회로부터 전도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포목점 2층에서 집회를 가졌다.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다. 1917년 5월 28일 그는 기도 중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너는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계시의 음성을 듣는다.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정문 밖 대홍문 강에 이르러 물속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다. 이후 강으로부터 올라와 둑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다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고 각 교파의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지시였다. 1917년 5월 30일 다시 똑같은 지시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지시와 함께 주어진 상세한 계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베풀면 안된다.

넷째,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서는 안된다.

위바울은 이러한 계시를 받고 성경을 상고한 결과 계시를 받은 내용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기독교 교단 교파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참다운 교회를 통해 사도시대와 같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각 교단과 교파의 그릇된 교훈을 바로 잡아야 함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1917년 이후 전도를 시작하였는데 그해 11월 30일(양력 1918년 1월 2일)에 교회를 세우고 「참예수교회」(眞耶穌教會)라고 칭했다. 1918년 장영생은 천진에서 위바울을 만나 그가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암수를 받아 참예수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위바울은 1917년 8월 무렵 세 개의 교회를 세웠고 1919년 2월 1일부터 참예수교회 진리를 전파하는 「만국갱정교보」(萬國更正教報)를 발행하여 각지에 발송하였다.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전도활동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같은 해 2월 산동성의 여러 곳을 전도하였고 장영생, 장바나바와 함께 유현이라는 지방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 전도활동의 무대는 주로 북경이었다. 그런데 위바울은 오래지 않아 1919년 10월 29일에 사망하였다. 위바울의 사망 후 장영생은 위문상(魏文祥)이라는 인물과 함께 화북지방에서 전도하였다.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전도활동을 전개한 인물은 장바나바였다. 그는 장영생에게 전도되어 성령을 받았고 1919년 위바울로부터 암수를 받아 장로로 세워

졌다. 그는 1920년에는 호북과 호남지방에서 전도하였고 1923년에는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등에까지 전도하였다. 그의 전도 사역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많은 권능과 이적, 기사가 나타났다. 그 결과 각 처에 참예수교회가 많이 세워졌다. 1919년에는 9개월 동안 8개의 성을 다니며 전도하였는데 총 2천여 명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42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1926년 4월 남경에서 3개월의 신학 교육 과정이 개설되었고, 같은 해 7월에는 제3차 전체대표대회를 개최하여 주요 교리가 통과되었다. 또 참예수교회 회칙을 제정하고 '총부'를 세워 총부에서 전체 교회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총부가 설치된 후 참예수교회의 교리는 수차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오늘날의 기본 신앙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었다. 1927년 총부가 상해로 옮겨진 후 장바나바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가서 전도했다. 이처럼 장바나바는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한 인물이지만 나중에 자기 자신이 「참예수교회 창립자」라는 생각을 품고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 장바나바는 총부에 반항하여 홍콩에 또 다른 총부를 세우고 「중화(中華) 참예수교회」라고 명명하였고 자신이 총감독의 자리에 올랐다. 이에 1930년 6차 임시대표대회에서 총부는 장바나바를 제명하고 1931년 3월 상해에서는 남북합일대회를 열어서 전체 교회가 하나임을 확인했다.

이후 총부는 항일전쟁 기간 중 중경으로 그 장소를 옮긴다. 1945년 '총부'를 '총회'로 개칭하고 전쟁이 종결된 후 그 위치를 다시 남경으로 옮긴다. 이후 참예수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계속 성장했고 1947년 5월 제11차 전체대표대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중국 내륙 내에 교회와 기도소가 1,000여개에 이르고 그 신도 수는 약 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1947년 記念專刊」근거). 그러나 1949년 이후 중국이 공산화 되면서 교회의 형편과 선교 사역은 매우 어려워졌다. 1965년 이후 십년에 걸친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소유의 회당은 공산당 정부에 빼앗겼고 많은 교회 지도자와 신도들이 끌려가 옥에 갇혔다. 1980년대에 이르러 집회의 자유가 주어지기까지 모든 기독교가 그러했듯이 참예수교회도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다.

중국이 공산화된 후 중국 내의 교회는 위축되었으나 참예수교회의 복음은 1925년 이후 중국 이외의 동남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다. 십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지역에 참예수교회가 들어섰다. 대만(1925년), 싱가폴(1926년), 말레이시아(1926년), 사바(1927년), 홍콩(1929년), 인도(1932년), 인도네시아(1939년)가 그 무렵 참예수교회가 세워진 나라들이다. 그 후 성령의 역사는 동남아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유럽,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로 퍼져나갔고 오늘날의 교세를 이루었다. 오늘날 참예수교회는 전 세계 63개국 약 60여만 명(중국 대륙의 신도수는 집계가 확인된 인원수만 포함)의 신도가 있다. 최근에는 중국,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활발한 포교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이 참예수교회의 설립의 과정에서 위바울, 장영생, 장바나바라는 세 인물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인물도 참예수교회의 창립자라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세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셨을 뿐이다. 또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 중국으로 넘어가 참예수교회 초기 사역자들이 잠시 그쪽에 몸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참예수교회는 오순절 교단의 분파는 아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와 같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성령받은 증거를 삼는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오순절 교단과는 다른 점이 더 많다.

참예수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단, 교파에서 분리되어 성립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떤 교단,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교단이다. 참예수교회는 외경이나 위경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로지 66권의 성경만을 유일한 정경으로 인정한다. 참예수교회는 어떤 인간이나 피조물을 신앙의 대상으로 우상화하지 않으며 오직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섬긴다. 참예수교회는 이 사회와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으며 성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본다면 참예수교회는 신흥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정통 기독교에 속한다. 참예수교회는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으며, 초대교회의 교

리와 개신교의 교리를 비교할 때 크게 변질되었고 그 변질의 결과 기독교는 영혼 구원의 권세를 상실했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 개혁하고자 한다. 이 개혁은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참예수교회이다. 참예수교회는 이 땅 위의 불완전한 사람의 사상과 의지로 시작된 개혁교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완전하신 성령께서 주도하여 세우신 진정한 의미의 개혁교회이다.

3. 한국에 전파된 참예수교회

1943년 7월 30일 재일교포 배상용(故 배영도 목자)씨는 일본 오사카 소재 참예수교회의 전도로 성령을 받고 한국인 최초로 중생(거듭남)하게 된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이르러 각처에 일본의 폭격이 심해졌는데 배상용씨는 이를 피해 1945년 1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그 후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 고향인 김천에 정착한다.

그는 김천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한국에 참예수교회가 설립되기를 소망했으나 당시 자신의 나이는 26세로 매우 젊었고 참예수교회에 들어온 지 5년 밖에 안 되는 평신도의 신분에 불과했다. 또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생활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모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없었다. 이런 개인적 배경 속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 일본 참예수교회나 대만 참예수교회로부터 선교사를 요청하거나 혹은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렇게 개인적인 처지도 열악하고 해외의 인적,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적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배상용씨가 일본에 있을 때 그를 장로교회로 인도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박창환씨였다. 그런데 1947년 배상용씨는 한국에서 그를 다시 재회하게 된다. 배상용씨는 박창환씨에게 참예수교회의 진리를 전하

였고 박창환씨가 이를 받아들여 성령을 받고 참예수교회로 개종하게 되었다. 박창환씨는 당시 작은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장로교회의 대다수 신도들에게 참예수교회의 성령을 받게 하였고 몇몇 일꾼들에게도 전도하였다. 이 때 전도된 인물이 바로 박필선, 홍종배, 우영택(우요한 목자)씨였다. 이 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1948년 10월 김천에 한국 최초의 회당이 세워졌다.

초기의 전도 사역에는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성령도 충만하게 내렸고 안수하면 병이 나았다. 또 사역자의 경우 목회경험도 없고 설교의 내용도 미숙하던 무렵이었는데 성령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목회자가 신도들에게 적절한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도우셨다. 예를 들면 세례식 전에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세례에 합당한 말씀이 계시로 나타나 세례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 또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계시로 알려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시거나 또 성경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거나 위로의 말씀을 내려주셨다. 이러한 방언 통역의 은사를 통한 계시는 당시 예배 때마다 자주 나타났다.

1948년 8월 어느 날 계시가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경북 "용문산에 가서 전도 하라"는 것이었다. 김천 교회 일꾼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윤석주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당시 삼계면 홍곡리에 있는 장로교회를 섬기던 전도사였다. 그는 참예수교회 진리를 받아들여 개종한 후 자신이 목회하던 홍곡 장로교회의 신도들에게 돌아가 진리를 전했고 그 결과 1949년 참예수교회 홍곡교회(삼계교회의 전신)와 서도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 후 2년 동안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1950년 4월에는 제1차 교회대표대회를 홍곡교회에서 개최하여 기독교 종교 단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6.25)이 발발했고 이에 경북 소재의 김천교회 신도들은 대부분 낙동강 이남으로 피난했으나 전북 소재의 홍곡교회와 서도교회는 인민군 치하에서 큰 시련을 당하였다. 허상(허수진 목자)씨의 조모와 부친은 인민군에게 순교를 당하였고 허상 형제 자신도 심한 구타를 당한 후 감금되었다. 허상 형제의 인척인 허병암(故 허야곱 목자)씨의 경우 심하게 구타당하여 죽음 직전에까

지 이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심한 박해의 상황에서 일부 연약한 신도들은 성경을 감추고 불신자처럼 행세하기도 했지만 견고한 신앙의 신도들은 죽음을 무릎쓰고 집회에 참석하며 기도생활에 전념하였다. 이 무렵 성령이 주시는 예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로 계시가 나타나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유엔군의 한국 전쟁 개입으로 인민군은 북쪽으로 물러갔지만 마을 주민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이 산 속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빨치산으로 활동하였다. 빨치산은 낮에는 산 속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면 민가에 내려와 살인과 약탈을 자행했고 그 결과 마을 주민들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제반 활동도 위축되었고 또 목회자도 부재한 상황인지라 더 이상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김천교회의 박필선 집사는 투철한 사명감을 품고 전라도 지방의 전도를 위해서 1950년 11월 목회자로 자원하였다. 전쟁 중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홍곡교회와 서도교회 목회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가 홍곡교회와 서도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후 1951년 7월 11일 빨치산 8명이 서도교회에 들이닥쳐 박필선 목자를 납치해 가서 그날 밤 산에서 박필선 목자를 살해했다. 그가 순교당한 장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이 있었는데, 매우 밝은 빛이 순교한 그 장소를 오랫 동안 내리 비쳤다. 당시 빨치산의 활동을 막기 위해 조성되었던 자경대원들도 밤에 근무하다가 이 빛을 멀리서 목격하고 의아하게 여겼다고 전해진다. 또 그 순교 장소로부터 약 6km쯤 떨어진 홍곡교회에서는 허병암씨 외 몇 사람들이 이 빛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 빨치산들이 다시 서도교회에 들이 닥쳤을 때 그들은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고 한다. 나중에 자수한 빨치산이 박필선 목자님의 순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그들이 박필선 목자를 불들어 땅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죽이기 전에 "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오"라고 말했고 이에 허락해 주었더니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말로 기도하였다 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빨치산 대장이 죽이라고 명령해서 돌로 치니 그가 돌에 맞은 후 다시 일

어나서 “나를 친 당신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으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에 분노하며 돌로 다시 머리를 내려쳤더니 곧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 자리를 내리 비쳤고 그 빛이 어찌나 강했던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밝기였다고 한다. 이에 이 상황을 목격한 빨치산들은 모두 두려워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 채 20분가량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참예수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그 때에는 전문적 훈련을 받은 목회자도 없었고 교회의 재정 형편도 어려웠다. 때로는 성직자와 신도들이 자비를 들여 전도 활동을 수행해야만 했다. 그런 가운데 1963년과 1964년에 신학원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목회자를 양성했고 1967년 대만에서 열렸던 제1회 각국 교회대표대회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유대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의 참예수교회는 독립적인 총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교류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한국에는 33개의 교회 및 기도소가 있으며 재적 신도수는 3,500명에 이른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에 참예수교회가 세워진 것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천주교나 일반 개신교의 경우 처음 한국에 뿌리를 내릴 때 충분히 훈련을 받은 선교사와 충분한 재정지원이 있었다. 그들은 이 재정과 인력으로 학교와 병원과 같은 기관을 세워 조직적으로 선교했다. 그러나 본 교회는 대만의 참예수교회나 일본의 참예수교회로부터 선교사가 파송되지도 않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도 못했다. 또 시대적으로 일제해방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격랑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다. 또 본회가 소유한 교리적인 요소들 즉 토요 안식일 준수의 신앙, 방언을 성령받은 증거로 믿는 신앙,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를 죄사함의 성례로 믿는 신앙 등으로 인해 본회보다 약 70년 먼저 한국에 뿌리를 내린 일반 개신교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받으며 온갖 박해와 비방을 감내해야 했다. 이렇게 내외적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본 교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독자적인 총회를 구축하고 오늘날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 선민으로 하여금 말세에

세상에 참 진리를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타내신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집. 순교자 박필선 목자의 생애

참예수교회로의 입교과정



<세무서 근무 당시 박필선 목자>

박필선 목자는 참예수교회에 입교하기 전 김천의 황금동에 소재한 장로교회 신도였다. 당시 그는 김천세무서에 계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김천군청 재무과에 근무하던 홍종배씨와 황금동 장로교회에 같이 출석하는 교우관계였다. 그런데 홍종배씨는 학교 동창이었던 박창환씨의 인도로 먼저 참예수교회로 개종하였고 이후 박필선 목자를 전도했던 것이다.

박필선 목자는 신앙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인물로서 세례와 성령을 받은 후 교동에 거주하던 박창환씨 집에서 매일 밤마다 진리에 관해 토론할 정도였다. 본래 박필선 목자와 홍종배씨가 출석했던 황금동 장로교회는 교회의 기둥처럼 여기던 두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개종하여 매우 당황하였다고 한다. 황금동 장로교회는 당시 김천군수도 출석하는 교회였고 그 교회 담임목사인 문 목사는 김천군수와 협력하여 두 사람을 집요하게 설득하였다. 문 목사와 군수는 두 사람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심지어 권력으로 위협하기까지 했으나 진리에 대해 확신한 두 사람을 설득할 수 없었다. 이 후에 황금동 장로교회로부터 많은 신도들이 참예수교회로 개종하였다.

김천교회 회당 건축을 주도하다

박필선 목자가 개종했을 당시 김천에는 참예수교회 회당이 없어서 박창환씨 집에서 가정 집회를 열었다. 당시 교회의 재정 형편으로는 회당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박필선 목자는 개종 직후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회당 건축을 추

진하였다.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였다. 모든 신도들이 이에 감동하여 건축현금에 동참하였고 어떤 신도들은 기르던 가축들을 팔기까지 했다. 교회당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짓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모든 신도들이 참여했다. 신도들은 목재와 기와를 직접 나르고 목수 일은 권형제가 직접 봉사했다. 이렇게 모든 신도들의 헌신과 봉사로 건물은 외관은 완성되었지만 마루를 깔 비용이 없어서 그냥 맨 바닥에 거적을 깔아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10월 한국 땅 위에 세워진 최초의 회당에 "참예수교회" 간판을 내걸게 되었다.



<1950. 5. 21. 세무서 직원들과 함께 부산 송도에서>

김천에서의 전도사역

박필선 목자는 교회당 건축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영택씨(우요한 목자)를 전도하였다. 우영택씨는 당시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이하 안식일교회)의 신도로서 삼육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는 중이었는데 태릉에 신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일로 인해 1년 간 휴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우영택씨는 휴교하는 동안 학비도 벌고 문서 전도활동을 할 겸 교단에서 발행한 「시조」라는 잡지를 가지고 1948년 8월경 고향인 김천에 내려왔던 것이다. 어느 날 그가 김천세무서에 가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참예수교회 신자인 박필선 목자를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계속 만나서 성경을 연구하기로 약속한다.

다음 날 박필선 목자와 배상용씨(배영도 목자)는 우영택씨의 집으로 찾아가 안식일교회의 유장로와 함께 성경토론을 시작하였다. 성경토론은 매우 진지하게 진행되었고 안식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에 대한 토론이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안식일교회의 유장로는 참예수교회의 진리를 거부한 반면 우영택씨는 참예수교회의 진리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참예수교회에 내린 성령이 초대교회에 내린 성령과 동일하다면 자신에게도 똑같은 성령세례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다.



<1947. 6. 8. 김천 교동 회당의 첫 집회 기념>

그렇게 성령을 구한 지 한 달이 지났고 1948년 9월 17일 금요일 저녁예배가 끝난 후 우영택씨는 박필선 목자에게 안수를 청했다. 우영택씨는 '참예수교회에 내린 성령이 과연 오순절에 내린 성령인가?'라는 의문이 마음 한 구석에 있었지만

한 달 동안 성경공부를 통해서 모든 의심이 풀리고 성령 받기를 갈망하게 된 것이다. 박필선 목자는 기쁜 마음으로 앉수할 것을 허락하여 아직 건축 중이던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영택씨는 박필선 목자의 앉수를 받는 가운데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방언이 터져 나왔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또 교회당을 건축하는 중에 “용문산에 구원 받을 두 사람이 있으니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 이에 교회는 박필선 목자와 홍종배씨를 급히 용문산으로 보냈다. 당시 용문산에서는 마침 ‘목회자 수양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용문산으로 가는 중 나무 밑에서 성경토론을 하고 있던 윤석주씨와 유문열씨를 만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을 만나 성경을 토론한 결과 그들이 본회 진리를 받아들이고 김천교회에서 세례와 성령을 받고 개종하게 되었다.



<1949. 9. 김천교회 영은회 기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 유문열씨는 고향인 강원도로 돌아갔고 윤석주씨는 원

래 자신이 목회하던 삼계면 홍곡리의 장로교회로 돌아갔다. 본래 윤석주씨는 홍곡리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던 가운데 교회에 “나의 목회역량이 부족하니 경북 용문산에서 열리는 전국 목회자 수양대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떠났었다. 그리고 1948년 9월 15일에 삼계로 돌아온 후 신도들에게 참예수교회의 진리를 전하였고 허병암(故 허야곱 목자), 허상(허수진 목자)씨를 비롯한 홍곡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신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예수교회로 개종하게 되었다.

전라지역 전임사역자로 헌신하다

김천에 최초의 참예수교회가 세워진 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된 초기 인꾼들에 의해 홍곡(삼계), 서도, 전주 등에도 참예수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곧 한국전쟁(6.25)이 발발한다. 김천 교회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많은 신도들이 낙동강을 넘어 피난할 수 있었고 '9.28 수복'으로 인해 다시 김천에 돌아와 집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홍곡과 서도 지역이 회복은 되었지만 빨치산으로 인해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 경북 김천에 비해 전북 지역의 신도는 비교적 많았지만 한국전쟁으로 인해 신앙의 열기가 식어 가고 점점 침체되는 상황이었다.

이 때 박필선 목자가 자원해서 전북지역을 담임할 전임목회자로 나섰다. 당시 박필선 목자는 김천세무서의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부산으로 과장 승진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평소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박필선 목자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세무서의 일을 그만 두고 전북지역의 전임목회자로 자원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그는 참예수교회 한국총회가 세운 최초의 전임사역자가 되었다.

1950년 11월 참예수교회 한국총회에서는 박필선 목자를 홍곡교회와 서도교회의 담임목회자로 파송하였다. 박필선 목자는 총회로부터 파송을 받자 자기 아내

에게 집안을 부탁하고 집을 떠났다. 이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김천에서 서도로 가는 길은 400여 리나 되었는데 박필선 목자는 그 멀고 험한 길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다. 자전거를 타고 김천을 출발해 남원을 경유하여 서도에 도착했다. 전쟁 중이라 빨치산을 만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었지만 오로지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순례자의 정신으로 떠났던 것이다.

빨치산에 의해 순교하시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북지역의 교회는 혹독한 핍박을 감내해야 했다. 특별히 홍곡교회 신도였던 허수암씨(허수진 목자 부친)는 인민군의 총에 사살되었고 양주석(허수진 목자 조모) 모친은 팽이에 찍혀 죽임을 당했다. 이처럼 당시 참예수교회의 신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형언할 수 없는 큰 고초를 당하였다. '9.28 수복'으로 인해 인민군은 북으로 물러갔지만 산에는 빨치산이 여전히 은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박필선 목자는 홍곡교회와 서도교회의 담임목회자로 부임해 온 것이다.

박필선 목자는 홍곡교회와 서도교회에 부임한 후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박필선 목자와 신도들이 서도교회 회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빨치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군화를 신은 채 회당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박필선 목자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라고 담대히 요구하였다. 이에 격분한 빨치산들은 총으로 박필선 목자의 가슴을 때리며 "거만하다"라고 말했고 총대로 그분의 안경을 벗겼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박필선 목자가 읽으시던 책과 서류를 모두 꺼내서 불태워 버리더니 박필선 목자를 끌고 갔다.

이렇게 끌려간 박필선 목자는 서도교회 뒷산에서 빨치산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다. 나중에 자수한 빨치산의 증언에 따르면 박필선 목자는 돌에 맞아 죽임

을 당하는 순간까지 계속 기도를 하며 빨치산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다고 한다.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땅 바닥에 내리 비쳐서 이에 돌로 치던 빨치산이 거꾸러졌다고 한다. 이 빛은 서도 인근 10리나 떨어져 있던 삼계에서도 보일 정도로 매우 밝은 빛이었다고 한다. 이 순교 사건은 1951년 7월 11일에 발생했고 당시 그분의 나이 37세였다.

제2장 참예수교회의 기본신앙

참예수교회의 기본신앙은 1976년 제2차 세계 대표대회에서 열 개의 항목으로 확정되었으며 세계 연합 총회 조직의 지도를 받는 모든 각국 총회, 연락처 및 교회와 기도소들은 이것을 동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삼 일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재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임을 믿는다.
2.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3.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의 부흥된 참교회임을 믿는다.
4. 세례(침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5.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영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6. 세족례는 주님과 상관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성결, 겸손, 봉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침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족례를 일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간의 세족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7. 성찬례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주와 연합하고 영생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성례임을 믿는다. 이 성례는 필요할 때마다 거행하며 반드시 한 개의 누룩 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거행한다.

8. 안식일(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은 하나님께서 복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단, 이 날을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킨다.
9.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10.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너는
무대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